

초록번호 13-5

제 목	국 문	환자와 의사의 의료에 대한 태도차이		
	영 문	The difference in attitude toward medical care between patients and physician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강명근 ¹ · 박종구 ¹ · 김한중 ² · 손명세 ² · 김달래 ³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¹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² ,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체질의학교실		
	영 문	Myung Guen Kang ¹ , Jong Ku Park ¹ , Han Joong Kim ² Myong Sei Sohn ² , Dal Rae Kim ³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¹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² Department of Constitutional Medicine, Sang Ji Universit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³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강명근(전공의)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 한 중소도시의 의사와 한의사집단 및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각 집단의 의료에 대한 태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의사 및 한의사, 병원이용 환자 및 한방병원이용환자의 의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의사와 의료이용자의 태도차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둘째, 의료의 속성별로 각 집단의 태도차이를 고찰함으로써 태도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을 알아보았다.</p> <p>2.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대상자는 1998년 5월 2주일 동안 W시의 한 대학병원 내과계 외래를 방문하여 진료대기 중인 환자 152명과 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진료대기 중인 환자 154명, 같은 기간에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전문의와 전공의 등 의사 79명,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 근무하던 한의사 33명을 조사하였고 이중 의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에 2개이상의 공란을 남긴 대상을 제외한 39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p> <p>모든 변수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의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은 문헌고찰을 통해 1차적으로 구성한 문항들을 의과대학생과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본 예비조사의 인자분석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의료에 대한 태도를 돌봄과 치료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의료 의존적 집단', '치료지향적 집단', '돌봄선호적 집단', '의료회의적 집단' 등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p> <p>개발된 설문문항의 신뢰도는 돌봄과 치료라는 두 변수군과 각 변수군의 하위변수군별로 Cronbach의 α 계수를 구하여 내적일치도를 평가하였고 요인분석과 척도화 가정을 검정하기 위한 문항내적일치도 및 문항판별타당도를 이용하여 설문문항의 구</p>				

성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평가하였다.

환자와 의사의 의료에 대한 태도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chi-square 검정을 이용하였으며 연속형 변수로 측정된 하위변수군에서 환자와 의사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독립된 두집단 간의 t-검정을 이용하였다. 의료에 대한 태도 4개집단에 의사와 환자가 어떻게 소속되는지 검정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의료에 대한 태도를 치료와 돌봄 변수군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의료의존적 집단, 치료중심적 집단, 돌봄선호적 집단, 의료회의적 집단으로 분류하여 카이제곱검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병원이용환자는 의료의존적 집단에, 한방병원이용환자는 치료지향적 집단에, 의사는 의료회의적 집단에, 또 한의사는 돌봄선호적 집단에 속할 비차비가 1보다 커서 다른 집단에 속할 확률에 비해 의미 있게 높았다.

환자와 의사의 의료에 대한 태도 차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명하기 위해 치료와 돌봄을 예비조사시의 요인분석의 결과를 참고하여 분류한 하위변수군 별로 분석한 결과 의사에 비해서 병원이용환자가 치료변수군 중에서는 '진단과 치료 장비의 중요성', '의사의 권위', '치료의 과감성'을, 돌봄변수군에서는 '정보제공', '환자에 대한 개인적 관심' 등을 높게 평가하였고, 의사와 환자 모두 동일하게 '의사의 지식과 숙련도'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한의사와 한방병원이용환자를 비교하여 보면 한의사에 비해 한방병원이용환자가 치료변수군 중에서는 '진단과 치료시 장비의 중요성', '치료의 과감성'을, 돌봄변수군에서는 '진료시설의 편의성과 접근성', '의료진 간의 협조'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한의사와 한방병원 이용자 모두 '의사의 지식과 임상적 숙련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의사와 병원이용환자에 비해 '정보제공'을 보다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4. 고찰

우리나라의 의료이용자들은 의료제공자에 비해 의료이용자의 의료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다. 이러한 과도한 기대가 수요차원에서 왜곡된 의료소비나 환자-의사간의 갈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즉 의료이용자의 수요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서 의료이용자가 의료의 치료차원에 대한 현실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정보의 보급 등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의료이용자의 요구에 비해 낮은 의사의 돌봄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한의사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돌봄선호적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료제공체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이러한 양·한방 의료제공자간의 태도차이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